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석무



지난달 10월17일은 유신독재가 선포된 40주년으로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그리고 지난 10월26일은 10·26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적인 날이자 유신독재가 끝나던 3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40년과 33년이라는 짧은 세월, 우리의 삶이 보람된 생애였다는 아무런 징표도 없으니 더욱 가슴이 저러온다.

4·19를 고등학교 때 겪었고, 대학에 들어와 6·3한일회담 반대 투쟁으로 날을 세웠으며, 그런 와중에 “신망 잃은 박 정권 하야를 권고한다”라는 최초의 하야 권고 시위로 확대되면서 학생의 몸으로 첫번째 구속됐다. 오래지 않아 풀려났으나, 65년에는 한일협정 비준 반대로, 월남파병 반대 시위에 앞장서다가 두 번째로 구속되는 비운을 맞았다.

몸이 풀려나오자 군에 입대하라는 영장이 기다리기에 강원도 전방에서 3년 세월을 국토방위로 젊음을 보냈다. 68년에야 제대하여 그해 가을에 재입학으로 다시 대학생이 되었다. 69년에는 3선개헌 반대의 시국에 또 거두겨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대학원을 마친 뒤 교수가 되려던 1972년 영구독재가 완전 무결하게 자리 잡는 유신이 선포됐다.

정말로 암담했다. 계엄령이 선포되어 국회가 해산되고 모든 법과 헌법까지 중단됐다. 한 사람의 말이 법이고, 헌법인 절대권력으로 장악되는 엄연한 역사의 현실을 발똥발똥한 눈으로 지켜보던 그 때, 참으로 분개하고 기가 막혔다.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따위 통곡이 어떤 힘을 가습이 저러온다.

필주(筆誅)처럼 무서운 벌은 없다

발췌했다.

계엄령으로 군이 온갖 권력을 장악한 그때, 맨주먹인 국민들이 무슨 용맹을 부릴 수 있었겠는가. 그래도 나의 모교 전남대학교에서는 마침내 그해 12월 초 유신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합성’이라는 지하신문이 학교와 시내의 곳곳에 뿌려지는 쾌거가 일어났다. 죽음을 각오한 내 후배 대학생들이 일으킨 거사이자 의거였다.

1973년 3월 초까지 의거의 주동자들은 잡히지 않았고, 그들은 또다시 ‘고발’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살포하려다 끝내 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뚜렷한 역사적 사실

이 있지만 지방인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자 일체의 보도가 관제된 탓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최초의 반유신운동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73년 4월 부활절에 일어난 계신교 목사들의 거사가 첫 유신반대 운동으로 알려져 있어 반듯이 바로 잡아 야 할 역사이다.

고등학교 교사이던 나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학교에서 잡혀가 경찰국 공작본실의 지하에서 술한 고문과 감압에 의해 ‘합성’과 ‘고발’을 제작하여 국가반란을 예비 음모로 수괴로 문갑되고 말았다. 내가 잘 알고 지내던 동지이자 후배들이 했던 일인데, 나를 지령한 수괴라고 시나리오를

만든 뒤 독방의 감옥에 처박아 73년 내내 법정에서 싸워야 했다. 교수가 되려던 꿈과 희망은 무너지고, 고문에 망가진 몸만 남아 있어 캄캄한 세월이 그 시절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해 연말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아픈 몸을 이끌고 출소하였다. 검찰은 상고하였고 76년에야 상고의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74년 민청학련사건이 일어났고, 75년 긴급조치가 마구 발동되면서 나의 삶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생을 이어가야 했다.

생사람 잡아가다 고문으로 간첩도 만들어 인생을 파탄시키고, 통치자 한 사람만

천하의 자유를 누리며, 그의 추종자들만 한세상 만났다고 삶을 구가하던 시절이 유신독재였다. 그런 시절이 40년이 흘렀고, 그 종말을 고한지가 3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과거사가 말쑥 정리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런 기막힌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

구국의 결단이었느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본심을 토로해놓고, 국민적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말을 바꾸고 있지만 그런 말에 진정성이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 무서운 것은 충도 아니고 칼도 아니다. 역사는 반드시 진실만이 승자가 된다. 시간이야 아무리 지연되더라도 결코 역사적 정의와 진실만은 묻히지 않는다. 역사에 맡겨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사란 어떤 것인가. 역사에 기록되는 진실과 정의가 바로 춘추필법이다.

진실과 정의의 힘은 모든 권력과 역사를 뒤엎을 수도 없지만 거짓과 불의에는 무서운 필주(筆誅)를 내리기도 한다. 유신이 불가피했고 옳았으며, 독재가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믿는 사람들, 춘추필법은 거짓과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세월이 지났다고 관대해지지 않는다. 필주는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 칼럼



김상용

심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습관의 서구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보유자 증가 등으로 인해 심혈관질환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심혈관질환 중에서도 돌연사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심근경색은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증상으로,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큰 3개의 심장혈관(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발생한다.

돌연사 부르는 당뇨병

심근경색의 주요 증상은 심한 가슴 통증이다. 가슴 한가운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30분 이상 계속되면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다. 통증이 왼쪽 팔, 등, 목이나 턱에서 느껴지기도 한다. 구토나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쇼크로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게도 한다.

심근경색은 처음 발작 중 사망하는 경우가 20% 이상이고, 증상이 심각할 경우 발병 24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환자 약 30%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며, 병원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1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콜레스테롤이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당뇨 환자가 혈당 수치뿐 아니라 혈액 내 지질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야 하는 이유다.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과 비만, 정신적 스트레스, 한랭자극, 노화, 유전적 소인, 알코올 과잉섭취 등이 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6배 높으며, 70~80%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보고도 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과 맥박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겨울철에 외출을 할 때는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해 찬 기운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더불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혈당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혈중 지질 관리에도

기고



김재호

사회가 발전할수록 남을 배려하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게 마련이다. 스튜어디스, 콜센터 안내직원, 백화점 및 마트 판매원들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감정노동자’라고 일컫는다.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배우가 연기를 하듯 근로자가 고객의 감정을 맞추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혹은 회사가 원하는 대로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하고 필요한 감정만을 사용하면서 점점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잊게 된다.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고객만족이 기업경쟁력의 척도가 되면서 ‘감정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민간 서비스 노동자 삶의 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비스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후유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기 필요한 이들이 무척 많았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이직률은 다른 업계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질병이 뇌심혈관, 근골격계 질환이었다면 ‘감정노동자’들에게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정근로자가 장기간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채 흥분과 화를 억제하면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

할어 유통마진 폭리에 양식업자·소비자만 피해

한우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전국의 한우 농가들이 전부 죽을 맛이고, 심지어 사료를 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소가 있다고 할 정도이다. 오죽하면 올해 초에는 방송에서 먹을 게 없는 한우가 흙을 파먹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을까.

한우를 기르는 농민들은 지금 소값이 개 값보다도 싸다고 하소연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한우를 사 먹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한우만의 일일까. 다른 어떤 활어회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로 서 너무나 불만스럽다. 양식어민들은 활어값이 폭락해 울상을 짓고 있다는 뉴스가 방송에 나오지만 우리가 횡집에 가서 회를 시켜 먹을 때는 언제나 똑같다. 그저 느끼는 것은 활어값이 올랐을 때 돈 더 내는 것 말고, 활어값이 내렸더라도 값을 적게 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활어 역시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활어 양식도 사료를 먹는데 1년 새 사료값은 30% 이상 급등했지만, 수출과 국내 소비가 다함께 줄어 값이 폭락했다고 한다. 이렇게 양식장 산지의 활어 가격은 크게 떨어졌지만, 횡집이나 시장의 소비자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기막히다. 활어 양식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예를 들어 참돔 1kg짜리 1마리는 평균 2만원 정도에 횡집에 가지지만, 손님상에 오를 때는 4~5배 뛰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회 값이 엄청난 차이를 나는 이유는 중간상인과 횡집 때문이다.

활어는 수협에서 경매한 뒤, 중간 도매상을 거쳐 횡집까지 3단계 이상의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 유통단계마다 이윤이 붙는 데다, 특히 횡집에서 4배 이상 엄청난 폭리를 챙긴다. 그러니 회 값이 내리지 않는 것이다.

중간유통 마진에다가, 횡집에서 가격을 정한 내리지 않고 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활어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턱 없이 폭리를 취하는 중간 유통과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양식업 어민들과 소비자만 피해를 볼 것이다. 이를 개선할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유규은·광양시 항일동

시설

광주시 기업투자유치 ‘속빈 강정’이라니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사업이 외화내빈이라는 지적이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가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무리한 투자유치로 ‘헛실’만 쓴 탓이다.

게다가 시의회까지 압박해 예산을 반영했다가 투자유치가 무산되는 사례까지 빈번했다고 한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투자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사행정이 아닐 수 없다.

13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내의 업체 중 실제 투자율은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년 동안 301개 업체(국내 239개·국외 62개)와 4조 954억 원(국내 2조2669억 원·국외 1조 8285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투자한 업체는 37.9%인 114개(국내 102개·국외 12개)로 투자금액도 12%인

4919억 원(국내 4018억 원·국외 901억 원)이었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로 인한 고용효과라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무리한 투자유치로 ‘헛실’만 쓴 탓이다. 투자에 관한 심판 보이는 단계인데도 마치 투자상사된 것처럼 꾸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기업투자유치는 고용창출은 물론 인구 증가,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때문에 시는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왜 포기를 하는지 등의 원인을 파악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만 시민에게 알리는 신뢰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엔진부품 빠진 채 출고된 황당한 현대차

현대자동차의 한 차장에서 엔진의 주요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채 출고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글로벌기업 현대차에 이런 여처구니 없는 부품사고가 있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광주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이모씨는 지난달 중순 현대차 제네시스 쿠파 2.0을 구입했으나 3주가 지난 이달 초 차량에서 심한 소음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씨는 인근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한 결과, 엔진에 오일 체크를 위한 ‘가이드’와 ‘레벨 게이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일 가이드가 빠진 엔진에는 오일이 새어나와 엔진룸 내부가 기름 범벅이 돼 있었다. 서비스센터 직원조차 “엔진 오일 가이드가 없는 차량은 처음 본다”며 “상태로 보아 출고할 때부터 장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엔진오일 가이드는 엔진 내 오일 상태와 양을 점검하는 중요 부품이다. 엔진 오일이 새면 엔진 내부의 피스톤 작

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결국 엔진의 손상으로 이어져 주행 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만일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멈추는다면 끔찍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모든 신차는 출고 시 각 분야별 검사를 물론, 주행시험까지 3단계의 검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본 부품이 빠진 채 출고됐다는 것은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현대차서비스센터 측은 “엔진을 교환해 달라”는 이씨의 요구에 “은 이상이 아니고, 엔진에 세부 부품을 장착했으니 해결된 문제”라며 일축했다니 세계 6위의 현대차가 할 짓인가.

그렇지 않아도 현대차는 연비를 속여 미국에서 수천억 원의 집산 배상소송에 걸려 있고, 국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잘 나갈수록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다. 경제민주화도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데 있다.

無等鼓

미국의 철강 왕 ‘카네기’에 대한 유명 한 일화는 많다. 그 가운데 하나의 일화를 보면, 여섯번의 사업에 실패한 카네기는 좌절에 빠져 수면제 병을 들고 다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리가 잘려나간 ‘리어카 운’을 만나게 된다.

카네기는 한쪽 다리가 없는데도 리어카에 몸을 의지한 채 끌고 다니며 반값에 웃고 인사를 건네는 그를 보게 됐다. 카네기는 육신이 말쑥한 자신에 대해 크게 깨달은 뒤 수면제 병을 던져버리고 철강왕이 됐다.

요즘에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렵다는 이야기 뿐이다. 전 세계의 금융 위기는 끝이 안보이고,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가계 부채 망국론이 나오는 데다 각종 경제 지표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나 국가 모두 온통 풀기 어려운 난제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위기(危機)다. 하지만 위기는 한자에는 기회라는 뜻이 들어 있기도 하다. 위기(危機)의 기는 한자로 ‘기회’를 뜻하는 기(機)자가 합쳐진 말이다. 즉 위함을 이겨낸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손자병법 ‘군정편’에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사자성이 있다. 실패와 예기치 않은 고난을 오히려 전회위복의 계기로 삼으라는 교훈이다. 대부분 위대한 인물과 세계 선진국을 달리는 국가들은 위기에 직면할수록 강한 신념과 의지를 발휘해 도리어 기회로 삼았다.



위기는 기회도 또 다른 한 쪽 얼굴이다. 개인의 삶에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위기는 항상 상 있어왔다. 이 위기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가계 부채 망국론이 나오는 데다 각종 경제 지표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나 국가 모두 온통 풀기 어려운 난제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문·영문·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채취부 2200-62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책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기화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